

지역 소식통

정읍시 새희망자금 지급
2차 현장 접수센터 운영

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새희망자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2차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새희망자금은 중소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과 영업제한 또는 집합 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취해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1차 신청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피해업종과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업체 등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는 5부제 접수,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진행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드림스타트

신나는 레고교실 호응

부안군 드림스타트가 운영하는 '신나는 레고교실'이 대상 아동 및 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나는 레고 교실'은 드림스타트 대상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 아동 등 11명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블록 교구를 통해 상상력, 창의력, 집중력 등을 키워 아동의 인지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 10월부터 주2회 실시하고 있는 레고 프로그램은 참여 아동이 블록과 지렛대, 바퀴, 도르레 등 다양한 과학원리를 응용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면서 쉽고 재미있게 수학·과학의 원리를 습득하고 있다.

부안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매주 레고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며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고 또래 아동들과 어울리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식량 산업발전 탄력

'식량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농식품부 최종 승인 총 1544억 들여 RPC 시설 현대화 등 21개 사업 추진

정읍시가 현대의 요구에 맞게 수립한 식량 산업 5개년 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을 받으며 식량 산업 발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식량 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식량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자격과 가점을 부여받게 됐다.

그동안 시는 세부적인 종합 계획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식량작물 생산 능

가와 농협, RPC 등 실무진 간 유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협의회는 기존 식량 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와 운영, 유통시설 가동률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종합적인 지원책과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서를 제출해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 평가, 3차 발표평가에서 모두 통과해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1,544억을 투자해 RPC 시설 현대화 사업과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등 총 2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발작물 권역별 단지화와 RPC 중심의 조직화·계열화를 통해 공동마케팅 체계 구축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명품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품목별 농가 대표와 지역농협, 국립종자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식량 산업종합계획 심의·점검·이행평가 ▲식량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통합마케팅 운영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전략 품목 선정·육성 및 발전방안 제안 등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식량 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토대로 지역 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농가의 조직화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하 단풍미인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0 인산 김홍도장사 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정상 '우뚱'

김홍도장사 씨름대회' 우승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하 단풍미인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0 인산 김홍도장사 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단풍미인씨름단이 주최하는 김홍도장사 씨름대회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울림파크내 생활체육관에서 열렸다.

단풍미인씨름단은 대회 단체전 결승전에서 이준호와 임진원 등 스타급 선수들이 포진한 영월군청 씨름단을 4대 0으로 제압하며 정상에 올랐다.

결승 경기에서 태백급 김성하 선수는 1차전에서 순명진 선수를 2대1로 제압하며 순조롭게 경기를 시작했다. 이어 2차전에서 배경진 선수와 3차전 김기환 선수, 4차전 김병찬 선수가 내리 승리하면서 우승의 희열을 맛봤다.

단체전은 기존 민속씨름리그에 없던 경기로 직전 영월장사 씨름대회에 처

음으로 도입됐다.

팀당 7명이 출전하며 8강까지는 개인 간 단판제(팀 7전 4승제), 준결승(4강)부터는 3판 2승제(팀 7전 4승제)로 치뤄진다.

단풍미인씨름단은 지난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씨름 최강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김시영 감독은 "상대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짜기가 잘 맞아들어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며 "이번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12월 정읍에서 개최되는 천하장사 씨름대축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단풍미인씨름단은 단체전 우승 외에도 개인전에서 태백급 5품(황찬섭 선수), 금강급 4품(배경진 선수), 6품(전도연 선수), 한라급 3품(이승욱 선수), 4품(김기환 선수), 7품(정상호 선수)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읍성 일원,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비 70억 확보... 자연마당 연계

고창자연마당 조성으로 생태경관이 크게 개선된 고창군 고창읍성 일원이 생태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고창군은 고창읍성 일원이 환경부의 고창읍 도시생태축 서식지 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현 정부 주요 추진 정책인 그린뉴딜 사업으로 생태축이 단절되어 훼손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연결하고 복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고창군은 사업대상지 주변에 개설된 도로(노동로)가 고창읍 남북 산립생태축을 단절해 도시생태계의 연속성이 끊어져 왔다.

이에 고창군은 녹지연결로, 생태습지, 탄소저감숲, 생물서식공간, 자연관찰로 등을 2022년까지 완공해 군민에게 최상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비 70억원을 확보해 이중 70%(49억원)를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추진된다.

생태복원 사업이 완료되면 고창자연

마당 노동저수지, 고창천, 주진천, 인천강하구 습지 등 산림 하천, 연안 생태계의 생태축 연결이 완성돼 명실상부한 생태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김영석 기자



고창읍 도시생태축 서식지 복원사업 대상지.

부안 백산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증 교부

29일까지 누락 등 이의신청

부안군 백산면은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 농가 750여 농가에 19일까지 등록증을 교부하고 오는 29일까지 등록농지의 누락, 등록거부

통보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기본직불금 신청 후 농지의 분필·합필, 환지, 경작자 변경 등 농지경형체 변경으로 인해 실제 경작농지가 기본직불 등록농지에 누락(또는 변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등록거절 통보서를 받은 농가는 농업의 소득 초과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와 해당 농지가 직불금 제외대상일 경우 등이다.

한편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0.5ha 미만 경작)과 면적직불금(0.5ha 이상 경작)에 의거해 이행 점검을 실시한 이후 오는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고모네 장터 드라이브스루 김장 체험행사

정읍시 북면 고모네 장터 광장에서 매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며 진행된 김장 체험 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로 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택배와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11월 3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고모네 장터 로컬푸드장(☎063-534-7737) 또는 이메일(gomone7737@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11월 6일부터 엄선된 김장 재료를 시민들과의 접촉 없이 차량 안에서 수령하거나 편안하게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로컬푸드 출하 약 정 참여 농가가 직접 가꾸고 생산한 안전한 배추와 청결 고춧가루, 양념 등으로 정성껏 준비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장 체험 참가(재료)비는 절임 배추 20kg과 양념 10kg 세트 17만원, 절임배추 10kg과 양념 5kg 세트 9만원이다.

고모네 장터 행사장에서는 김장김치와 고추장도 판매한다. 30kg 김장김치는 19만원, 15kg 김치는 10만원이며, 사과고추장과 찹쌀고추장(1kg)은 1만3천원에 판매한다.

시는 농산물 직거래 유통 촉진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등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하고 건강한 정읍산 김장김치 재료와 고추장을 마련하고, 지역 농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